

중년주부 가정의 전통음식 이용에 관한 연구

-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

강업순·천종희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1998년 11월 20일 접수)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Food Use Patterns in Households of Middle Aged Women living in Kyunggido and Incheon Area

Up-Soon Kang and Jong-Hee Chyun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Inha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20, 199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Korean traditional food use in the households of middle aged women living in Kyunggido and Incheon area.

Four hundred eighty seven housewives whose children were in middle school answered the questionnaire about Korean traditional food use patterns in ordinary days, national festive days and in private celebration or memorial days.

Most households have used Korean traditional table setting called *Bansang* as daily meals(96.7%) and have used home-made *Kimchi*(97.3%). However, the use of home-made *Jang* such as soy sauce, soybean paste and red pepper soybean paste was not very high(64.3%).

Most households have celebrated New Years day(99.6%) with *Ddukjuk* and *Manduguk*, *Chusuk*(95.1%) with *Songpyun*, and fruits, Full-Moon day(95.1%) with *Ogokbap*, *Namul* and *Brum*. *Dongji* was celebrated with *Patjuk* by 73.3% of households. However, *Samjital* and *Danho* were celebrated with *Whajeon* and *Ssukjulpyun* by only 18.9% and 43.8% of the households respectively.

The households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to celebrate the birthday, the 1st birthday of child, the wedding or to memorize the passing day of ancestors were 96.0%, 80.7%, 81.3% and 86.7% respectively.

Compared to households of urban and nuclear family, households of rural and extended family tended to use significantly more Korean traditional foods in many occasions and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ate of using home-made *Kimchi* and *Jang*.

I. 서론

우리 나라에서는 B.C. 5 - 6세기경 벼농사가 시작되었고¹⁾ 곡물의 생산이 증대되던 삼국 시대 후기경에 밥과 반찬의 반상 차림이 형성되었다²⁾. 고려 시대에 들어오면서 삼국 시대 후기경의 주·부식 분리 유형의

일상식 구조 외에 여러 가지 의례 음식 구조가 마련되고 음식의 조리 가공법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³⁾. 조선 전기에는 궁중 음식, 반가 음식, 서민 음식이 구별되었으나 후기인 17 - 19세기 사이에 궁중 음식은 반가 음식에, 반가 음식은 서민 음식에 영향을 주어 양반과 서민의 식생활 관습이 점차 하나로 통일되면서 한식의

완성을 기해 갔다⁴⁾. 이러한 식생활 문화의 발달로 상차림의 구성법이 정착되고 의례 음식의 상차림새나 명절 음식의 종류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으며 사계절이 뚜렷하여 시식과 절식도 다양해졌다⁵⁾.

한국의 전통적인 일상식의 상차림은 밥과 반찬으로 구성되는 반상이며 반상 차림은 밥과 반찬의 내용과 구성이 영양, 맛, 시각성 등에서 상호 보완성을 기본 원칙으로 다듬어져 있고, 이것을 모두 한 상에 모아 차리는 형식이다⁶⁾.

반상차림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는 우리 고유의 채소 발효 식품으로 삼국시대에 채소를 소금에 절여 먹었던 것에 비롯하며, 조선시대에 와서 여기에 고추가루와 갖달을 넣기 시작하여 현재의 김치 형태로 발전되었다⁷⁾. 김치와 함께 우리의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장'은 그 가정의 음식의 맛을 좌우한다하여 각 가정에서는 김치담그기와 장담그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왔다⁸⁾.

명절 음식이란 명절에 먹는 음식으로 그 계절에 생산되는 식품으로 만들어 특별한 맛을 내고 의례 음식으로도 쓰였으며 가족, 마을 모두가 함께 즐기는 데 중요한 몫을 해 왔다⁹⁾.

우리의 명절은 농경의례나 민간신앙, 민족오락 등을 배경으로 하며 설, 정월대보름, 삼짇날, 단오, 추석, 동지 등이 있고 이때 고유한 절식을 해먹는 풍습이 있다¹⁰⁾. 설에 설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세찬이라하며 떡국, 만둣국을 먹었고 정월 대보름에는 오희밥과 아홉 가지 나물을 하여 이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다. 삼짇날에는 참쌀가루를 반죽하여 둥글 납작하게 빚어 진달래꽃을 얹어 기름에 지지는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단오에는 썩질편을 해 먹었고 추석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고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례 조상에 차례를 지냈다. 동짓날은 팔죽을 쑤는데 참쌀가루로 새알심을 만들어 죽에 넣어 끓이고 팥죽국물을 문짝에 뿌려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한다는 풍습이 있다¹⁰⁾.

한편 혼례나 연례, 제례 등에는 일상식과 다른 구조의 상차림인 의례음식이 있다. 아기의 첫돌을 축하하는 돌상, 생일에 생신상, 혼례, 회갑, 회년 등에 잔칫상을 차리고 고인의 기일에는 제사상을 차려 제사를 지냈다¹¹⁾.

이와같이 우리의 전통음식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대가족 중심의 가족 제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이룩된 식품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식생활에 많은 변화와 편의성을 주게 되었고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핵가족 중심의 단출한 가족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의 간편성을 추구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정이외의 장소에서 식생

활을 해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일부 가정에서는 집에서 담가오던 장류나 침채류 등의 저장식품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공장에서 만들어진 반조리상태나 완전조리상태의 음식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¹²⁾. 더욱이 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된 서구식 외식산업의 발달은 우리의 식생활과 입맛을 서구화 시켜 우리 고유한 전통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¹³⁾. 특히 서구음식 위주의 외식산업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어 이들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의 식생활 태도는 우리 전통음식 문화발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지역인 인천시와 농촌지역인 경기도 일부지역의 청소년을 자녀로 둔 중년 주부 가정의 전통음식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우리 전통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경기도 농촌과 인천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중학생 자녀를 둔 30~50대 사이의 중년주부 487명을 대상으로 1996년 2월 1일부터 15일간에 걸쳐 설문지법으로 실시되었다.

2. 조사내용 및 자료의 처리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환경을 조사하는 항목과 전통음식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을¹⁴⁻¹⁹⁾ 참고로 작성하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일반적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는 거주지역, 가족형태, 가계의 총 월수입, 주부의 연령 및 학력 등을 조사하였다.

전통음식 이용실태는 평상시에 먹는 전통음식인 일상식과, 설날, 대보름, 삼짇날, 단오, 추석, 동지 등에 먹는 명절음식, 연례, 혼례, 제례 등에 쓰이는 전통음식인 행사음식으로 나누어 일상식 4문항, 명절음식 6문항, 행사음식에 관한 사항 4문항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환경은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전통음식 이용 실태는 χ^2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 환경

조사대상 가정의 거주지역, 가족형태, 가계 총 월수입, 주부의 연령 및 주부의 학력 등은 표 1과 같다.

거주지역별 분류로는 도시가정 49.7%, 농촌 가정 50.3%로 비슷한 비율이었고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89.3%, 확대가족이 10.7%로 핵가족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계의 총 월수입은 50~100만원이 22.8%, 100~250만원이 59.9%, 250만원 이상이 17.3%로 100~250만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생활정도가 중정도인 가정이 많았다. 주부의 연령은 30대가 23.8%, 40대가 70.2%, 50대 이상이 6.0%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30대 주부는 대부분 30대 후반이었으며, 50대 주부는 대부분 50대 전반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의 주부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에 걸치는 중년 주부이었다. 주부의 학력은 초등졸이 17.8%, 중졸이 27.0%, 고졸이 48.8%, 대졸 이상이 6.4%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졸, 초등졸, 대졸 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 환경

일반적 환경	구분	N(%)	
		빈도	백분율
거주 지역	도시	242	49.7
	농촌	245	50.3
가족 형태	핵가족	434	89.3
	확대가족	52	10.7
	무응답	1	
가계 총월수입	50~100	107	22.8
	100~250	281	59.9
	250 이상	81	17.3
	무응답	18	
주부의 연령	30대	115	23.8
	40대	340	70.2
	50대	29	6.0
	무응답	3	
주부의 학력	초등졸	86	17.8
	중졸	130	27.0
	고졸	235	48.8
	대졸이상	31	6.4
	무응답	5	
계		487	100

2. 전통음식의 이용실태

1) 일상식

① 반상차림의 이용

‘매 끼니마다 밥, 국, 김치와 반찬을 중심으로 한 전통 음식을 먹는다.’라는 질문은 〈표 2〉에서와 같이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가 96.9%나 되어 많은 가정에서 매 끼니에 반상 형태를 계속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밥과 반찬의 반상 차림이 우리의 기호면에서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의 연구²⁰⁾에 의하면 두끼 이상 전통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86.7%나 된다고 하였고, ‘한’에 의하면 72%가 세끼 모두를 반상 차림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어 본 조사와 유사한 경향이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혀 아니다’가 농촌가정이 1.7%, 도시 가정이 4.5%로 매끼 반상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도시가정이 농촌가정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가족 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확대가족이 핵가족에 비해 매끼니 전통 음식을 먹는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이는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이 반상 차림을 더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가계의 총 월수입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수입이 많은 가정에서 반상의 이용도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이 매 끼니마다 반상차림의 전통음식을 이용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가정이 많았으나, ‘매우 그렇다’ 보다는 ‘그런 편이다’가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가족 형태가 더욱 핵가족화 됨에 따라 매끼 전통 음식을 먹는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② 가정에서 김치를 담그는 비율

‘김치를 집에서 담가 먹는다’라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80.1%, ‘그런 편이다’가 17.2%로 총 97.3%가 긍정적으로 답하여 대부분의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율이 ‘이’ (1985)의 조사²²⁾에 의해서는 98.6%, ‘한’ (1986)²¹⁾의 조사에서도 97%로 보고되어 본 조사와 유사하여 가정에서 김치를 담그는 비율이 본 조사의 시기에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학생을 둔 가정이었으므로 주부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가 76.2%나 되었고 30대의 주부라 해도 대부분 35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이하 연령의 젊은 주부에 비해 김치 담그는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매 끼니의 반상차림 이용도

N(%)

일반적 환경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75(30.5)	160(65.0)	11(4.5)	246(50.5)	$\chi^2=6.14^*$
	농촌	75(31.1)	162(67.2)	4(1.7)	241(49.5)	
	계	150(30.8)	322(66.1)	15(3.1)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128(29.5)	292(67.3)	14(3.2)	434(89.3)	$\chi^2=2.91^{ns}$
	확대가족	22(42.3)	29(55.8)	1(1.9)	52(10.7)	
	계	150(30.9)	321(66.0)	15(3.1)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34(31.8)	70(65.4)	3(2.8)	107(22.8)	$\chi^2=2.91^{ns}$
	100-250	92(32.7)	182(64.8)	7(2.5)	281(59.9)	
	250 이상	20(24.7)	57(70.4)	4(4.9)	81(17.3)	
	계	146(31.1)	309(65.9)	14(3.0)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36(31.3)	75(65.2)	4(3.5)	115(23.8)	$\chi^2=2.23^{ns}$
	40대	104(30.6)	228(67.1)	8(2.3)	340(70.2)	
	50대 이상	9(31.0)	18(62.1)	2(6.9)	29(6.0)	
	계	149(30.8)	321(66.3)	14(2.9)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27(31.4)	56(65.1)	3(3.5)	86(17.8)	$\chi^2=6.71^{ns}$
	중졸	45(34.6)	84(64.6)	1(0.8)	130(27.0)	
	고졸	71(30.2)	155(66.0)	9(3.8)	235(48.8)	
	대졸이상	5(16.1)	25(80.7)	1(3.2)	31(6.4)	
	계	148(30.7)	320(66.4)	14(2.9)	482(100)	

*P<0.05 ns : not significant

〈표 3〉 가정에서 김치를 담그는 비율

N(%)

일반적 환경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181(74.8)	53(21.9)	8(3.3)	242(49.7)	$\chi^2=8.12^{**}$
	농촌	209(85.3)	31(12.7)	5(2.0)	245(50.3)	
	계	390(80.1)	84(17.2)	13(2.7)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340(78.3)	81(18.7)	13(3.0)	434(89.3)	$\chi^2=7.45^*$
	확대가족	49(94.2)	3(5.8)	0(0.0)	52(10.7)	
	계	389(80.0)	84(17.3)	13(2.7)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89(83.2)	14(13.1)	4(3.7)	107(22.8)	$\chi^2=6.46^{ns}$
	100-250	230(81.8)	46(16.4)	5(1.8)	281(59.9)	
	250 이상	58(71.6)	20(24.7)	3(3.7)	81(17.3)	
	계	377(80.4)	80(17.1)	12(2.5)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91(79.1)	23(20.0)	1(0.9)	115(23.8)	$\chi^2=6.24^{ns}$
	40대	271(79.7)	58(17.1)	11(3.2)	340(70.2)	
	50대 이상	27(93.2)	1(3.4)	1(3.4)	29(6.0)	
	계	389(80.4)	82(16.9)	13(2.7)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76(88.4)	7(8.1)	3(3.5)	86(17.8)	$\chi^2=24.12^{**}$
	중졸	106(81.5)	20(15.4)	4(3.1)	130(27.0)	
	고졸	183(77.9)	49(20.9)	3(1.2)	235(48.8)	
	대졸이상	16(51.6)	12(38.7)	3(9.7)	31(6.4)	
	계	381(79.0)	88(18.3)	13(2.7)	482(100)	

* P<0.05 ** P<0.01 ns : not significant

〈표 4〉 가정에서 장류를 담그는 비율

N(%)

일반적 환경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36(14.9)	102(42.1)	104(43.0)	242(49.7)	$\chi^2=23.01^{***}$
	농촌	81(33.1)	94(38.3)	70(28.6)	245(50.3)	
	계	117(24.0)	196(43.0)	174(35.7)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97(22.4)	171(39.4)	166(38.3)	434(89.3)	$\chi^2=12.32^{***}$
	확대가족	20(38.5)	24(46.2)	8(15.4)	52(10.7)	
	계	117(24.1)	195(40.1)	174(35.8)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30(28.0)	45(42.1)	32(29.9)	107(22.8)	$\chi^2=2.58^{**}$
	100-250	64(22.8)	114(40.6)	103(36.6)	281(59.9)	
	250 이상	18(22.2)	31(38.3)	32(39.5)	81(17.3)	
	계	112(23.9)	190(40.5)	167(35.6)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29(25.2)	43(37.4)	43(37.4)	115(23.8)	$\chi^2=2.43^{ns}$
	40대	81(23.8)	137(40.3)	122(35.9)	340(70.2)	
	50대 이상	7(24.1)	15(51.8)	7(24.1)	29(6.0)	
	계	117(30.8)	195(40.3)	172(35.5)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28(32.6)	28(32.5)	30(34.9)	86(17.8)	$\chi^2=21.60^{***}$
	중졸	38(29.2)	44(33.9)	48(36.9)	130(27.0)	
	고졸	49(20.9)	111(47.2)	75(31.9)	235(48.8)	
	대졸이상	2(6.4)	10(32.3)	19(61.3)	31(6.4)	
	계	117(24.3)	193(40.0)	172(35.7)	482(100)	

* P<0.01 ** P<0.001 ns : not significant 유의적인 차이 없음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 가정이 도시 가정 보다 김치를 집에서 담그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이는 농촌은 채소의 생산지이므로 도시보다는 김치를 손쉽게 담글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족 형태에 따라서는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주부의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이 다른 군보다 김치를 전혀 담그지 않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가계 총 월수입, 주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지 않았다.

③ 가정에서 장류를 담그는 비율

‘장류를 집에서 담근다’라는 조사 결과는 〈표 4〉에 서와 같이 ‘매우 그렇다’가 24.0%, ‘그런 편이다’가 40.3%로 64.3%가 장류를 담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가구 중 7가구인 70.9%가 된장을 직접 담가 먹는다고 보고한 한국궤립 조사²³⁾와 서울, 경기, 강원도 주부들이 장류를 집에서 담그는 비율이 65.9%라고 보고한 ‘이·신·김’의 연구²⁴⁾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그리고 농촌가정이 도시가정보다 장을 집에서 담그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한’²¹⁾은 장 담그기를 할 때 먼저 메주를 준비해야 하는데, 도시 생활에서

는 메주를 발효시킬 장소, 저장 공간의 문제점이 크고, 시판되는 장류 제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도시가 농촌보다 장을 집에서 담그는 비율이 적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도시의 경우 농촌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이 많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또한 주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집에서 장을 담그지 않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④ 가정에서 저장식품을 만드는 비율

‘집에서 오이지, 장아찌, 호박고지 등의 저장식품을 만들어 사용한다.’라는 질문에서는 〈표 5〉에서 보듯이 ‘매우 그렇다’가 14.3%, ‘그런 편이다’가 60.0%로 74.3%가 만들어 사용하는 편으로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25.7%를 차지하여 저장 식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가정도 장류 이용에서와 같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요즈음은 식품의 가공과 농업 기술의 발달로 계절에 관계없이 채소를 얻을 수 있어서 가정에서 저장 식품을 만들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표 5〉 가정에서 저장 식품을 만드는 비율

N(%)

일반적 환경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32(13.2)	142(59.1)	68(27.7)	242(49.7)	$\chi^2=1.55^{ns}$
	농촌	38(15.5)	150(61.2)	57(23.3)	245(50.3)	
	계	70(14.3)	292(60.0)	125(25.7)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59(13.6)	262(60.4)	113(26.0)	434(89.3)	$\chi^2=2.33^{ns}$
	확대가족	11(21.2)	30(57.7)	11(21.1)	52(10.7)	
	계	70(14.4)	292(60.1)	124(25.5)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17(15.9)	60(56.1)	30(28.0)	107(22.8)	$\chi^2=3.89^{ns}$
	100-250	44(15.7)	167(59.4)	70(24.9)	281(59.9)	
	250 이상	7(8.86)	55(67.9)	19(23.5)	81(17.3)	
	계	68(14.5)	282(60.1)	119(25.4)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13(11.3)	69(60.0)	33(28.7)	115(23.8)	$\chi^2=2.95^{ns}$
	40대	54(15.9)	206(60.6)	80(23.5)	340(70.2)	
	50대 이상	3(10.4)	17(58.6)	9(31.0)	29(6.0)	
	계	70(14.5)	292(60.3)	122(25.2)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13(15.1)	52(60.5)	21(24.4)	86(17.8)	$\chi^2=1.25^{ns}$
	중졸	18(13.9)	81(62.3)	31(23.9)	130(27.0)	
	고졸	36(15.3)	137(58.3)	62(26.4)	235(48.8)	
	대졸이상	3(9.7)	20(64.5)	8(25.8)	31(6.4)	
	계	70(14.5)	290(60.2)	122(25.3)	482(100)	

ns : not significant

〈표 6〉 설음식의 이용

N(%)

일반적 환경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194(80.2)	47(19.4)	1(0.4)	242(49.7)	$\chi^2=6.14^*$
	농촌	218(89.0)	26(10.6)	1(0.4)	245(50.3)	
	계	412(84.0)	73(15.0)	2(0.4)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364(83.9)	68(15.7)	2(0.4)	434(89.3)	$\chi^2=2.64^{ns}$
	확대가족	48(92.3)	4(7.7)	0(0)	52(10.7)	
	계	412(84.8)	72(14.8)	2(0.4)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93(86.9)	14(13.1)	0(0)	107(22.8)	$\chi^2=2.07^{ns}$
	100-250	237(84.3)	43(15.4)	1(0.3)	281(59.9)	
	250 이상	68(84.0)	12(14.8)	1(1.2)	81(17.3)	
	계	398(84.7)	69(14.7)	2(0.4)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98(85.2)	17(14.8)	43(37.4)	115(23.8)	$\chi^2=0.87^{ns}$
	40대	288(84.7)	50(14.7)	2(0.6)	340(70.2)	
	50대 이상	25(86.2)	4(13.8)	0(0)	29(6.0)	
	계	411(85.1)	71(14.5)	2(0.4)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75(87.2)	10(11.6)	1(1.2)	86(17.8)	$\chi^2=6.37^{ns}$
	중졸	110(84.6)	19(14.6)	1(0.8)	130(27.0)	
	고졸	188(80.0)	47(20.0)	0(0)	235(48.8)	
	대졸이상	23(74.2)	8(25.8)	0(0)	31(6.4)	
	계	396(82.2)	84(17.4)	2(0.4)	482(100)	

* P<0.05 ns : not significant

2) 명절음식

① 설

〈표 6〉에서 보듯이 '설날 떡국, 만둣국을 먹는다'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84.6%, '그런 편이다'가 15.0%로 99.6%가 떡국이나 만둣국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 설음식을 명절 음식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 (1986)의 연구¹⁸⁾에 의하면 설에 떡국을 먹는 가정이 도시 98%, 농촌 99%로 여러 명절 음식에 중에서도 으뜸을 차지하고 있고, 만두를 먹는 비율은 도시가 88.5%, 농촌이 86.0%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설을 쇠는 풍습은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에 떡국이나 만둣국을 먹는 비율은 가족 형태, 가계의 총 월수입, 주부의 연령 및 학력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고 거주지역에 있어서만 농촌가정이 도시가정보다 설음식을 먹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 (P<0.05) 도시보다는 농촌이 명절을 쇠는 것에 대한 의식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②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 묵은 나물, 부럼을 먹는다' 라는 질문에서는 〈표 7〉에서와 같이 '매우 그렇다'

가 51.7%, '그런 편이다'가 43.3%, '전혀 아니다'가 4.9%로 나타났다.

'임' (1986)의 연구¹⁸⁾에 의하면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은 95.1%, 묵은 나물은 73.8%가 먹고 있다고 보고하여 설보다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정월 대보름을 쇠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도 과거에 비해 줄지 않고 비교적 잘 지켜지는 명절이라 할 수 있다. 정월 대보름 음식의 이용 비율은 도시가정보다는 농촌가정이, 핵가족보다는 확대가족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③ 삼월 삼짇날

'삼월 삼짇날에는 진달래 화전을 먹는다' 라는 질문에 〈표 8〉에서와 같이 전혀 지내지 않고 있는 가정이 81.1%나 되었고 '매우 그렇다'가 2.7%, '그런 편이다'가 16.2%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도시에서는 14.1%, 농촌에서는 18.9%의 가정이 삼짇날을 쇠고 있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아직까지 지켜지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편이었다(P<0.05).

'임' (1986)의 연구¹⁸⁾에 의하면 삼월 삼짇날 음식을 해먹고 있는 가정이 8.6%라 보고하여 본 조사와 같이 삼짇날을 명절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편으로 거의

〈표 7〉 정월 대보름 음식의 이용

N(%)

일반적 환경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115(47.5)	112(46.3)	15(6.2)	242(49.7)	$\chi^2=2.74^{ns}$
	농촌	137(55.1)	99(40.4)	9(4.5)	245(50.3)	
	계	252(51.7)	211(43.4)	24(4.9)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221(50.7)		24(4.9)	434(89.3)	$\chi^2=1.46^{ns}$
	확대가족	49(45.8)	19(36.5)	2(3.9)	52(10.7)	
	계	252(51.9)	208(42.8)	26(5.4)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49(45.8)	47(43.9)	11(10.3)	107(22.8)	$\chi^2=8.38^{ns}$
	100-250	148(52.7)	123(43.8)	10(3.5)	281(59.9)	
	250 이상	45(55.6)	33(40.7)	3(3.7)	81(17.3)	
	계	242(51.6)	203(43.3)	24(5.1)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60(52.2)	52(45.2)	3(2.6)	115(23.8)	$\chi^2=3.95^{ns}$
	40대	171(50.3)	147(43.2)	3(2.6)	340(70.2)	
	50대 이상	18(62.1)	10(34.5)	22(3.4)	29(6.0)	
	계	249(51.4)	209(43.2)	26(5.4)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46(53.5)	31(36.1)	9(10.5)	86(17.8)	$\chi^2=10.84^{ns}$
	중졸	70(53.9)	57(43.9)	3(2.3)	130(27.0)	
	고졸	117(49.8)	104(44.3)	14(5.9)	235(48.8)	
	대졸이상	14(45.2)	17(54.8)	0(0)	31(6.4)	
	계	247(51.2)	209(43.4)	26(5.4)	482(100)	

ns : not significant

〈표 8〉 삼월 삼짇날 음식의 이용

N(%)

일반적 환경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6(2.5)	28(11.6)	208(85.9)	242(49.7)	$\chi^2=7.64^*$
	농촌	7(2.9)	51(20.8)	187(76.3)	245(50.3)	
	계	13(2.7)	79(16.2)	395(81.1)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10(2.3)	70(16.2)	395(81.5)	434(89.3)	$\chi^2=2.15^{ns}$
	확대가족	3(5.8)	8(15.4)	41(78.8)	52(10.7)	
	계	13(2.7)	78(16.1)	395(81.2)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1(0.9)	16(15.0)	90(84.1)	107(22.8)	$\chi^2=2.16^{ns}$
	100-250	7(2.5)	48(17.1)	226(80.4)	281(59.9)	
	250 이상	3(3.7)	14(17.3)	64(79.0)	81(17.3)	
	계	11(2.4)	78(16.6)	380(81.0)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2(1.7)	15(13.0)	98(85.2)	115(23.8)	$\chi^2=3.28^{ns}$
	40대	11(3.2)	60(17.7)	269(79.1)	340(70.2)	
	50대 이상	0(0)	4(13.8)	25(86.2)	29(6.0)	
	계	13(2.7)	79(16.3)	392(81.0)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3(3.5)	11(12.9)	72(83.6)	86(17.8)	$\chi^2=2.87^{ns}$
	중졸	3(2.3)	23(17.7)	104(80.0)	130(27.0)	
	고졸	7(3.0)	38(16.2)	190(80.8)	235(48.8)	
	대졸이상	0(0)	7(22.6)	24(77.4)	31(6.4)	
	계	13(2.7)	79(16.4)	390(80.9)	482(100)	

* P<0.05 ns : not significant

〈표 9〉 단오 음식의 이용

N(%)

일반적 환경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19(0.8)	85(35.1)	138(57.1)	242(49.7)	$\chi^2=2.31^{ns}$
	농촌	16(6.5)	103(42.8)	126(51.4)	245(50.3)	
	계	35(7.2)	188(38.6)	264(54.2)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31(7.2)	159(36.6)	244(56.2)	434(89.3)	$\chi^2=6.29^*$
	확대가족	4(7.7)	28(53.9)	20(38.5)	52(10.7)	
	계	35(7.2)	187(38.5)	264(54.3)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6(5.6)	37(34.6)	64(59.8)	107(22.8)	$\chi^2=4.23^{ns}$
	100-250	0(7.1)	119(42.4)	142(50.5)	281(59.9)	
	250 이상	8(9.9)	28(34.6)	45(55.5)	81(17.3)	
	계	34(7.3)	184(39.2)	251(53.5)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7(6.1)	41(35.6)	67(58.3)	115(23.8)	$\chi^2=3.62^{ns}$
	40대	27(7.9)	135(39.7)	178(52.4)	340(70.2)	
	50대 이상	1(3.4)	12(41.4)	16(55.2)	29(6.0)	
	계	35(2.7)	188(38.9)	261(53.9)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5(5.8)	33(38.4)	48(55.8)	86(17.8)	$\chi^2=0.69^{ns}$
	중졸	9(6.9)	51(39.2)	70(53.6)	130(27.0)	
	고졸	18(7.7)	92(39.1)	125(53.2)	235(48.8)	
	대졸이상	3(9.7)	12(38.7)	16(51.6)	31(6.4)	
	계	35(7.3)	188(39.0)	260(53.7)	482(100)	

* P<0.05 ns : not significant

맞혀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단오

〈표 9〉에서 보면 '단오에는 쭉 절편을 먹는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7.2%, '그런 편이다'가 38.6%, '전혀 아니다'가 54.2%를 차지 하여 단오를 명절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윤'(1993)의 연구²⁵⁾에 의하면 40.5%의 가정에서 단오에 쭉 절편을 이용한다고 하였고, '임'(1986)¹⁸⁾은 36.9%가 단오에 쭉 절편을 먹는다고 하였다.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그러나 다른 환경요인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⑤ 추석

〈표 10〉에서와 같이 '추석에 송편, 햇과일 등을 먹는다'라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가 48.3%, '그런 편이다'가 46.8%로 95.1%가 추석에 명절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 명절 음식 중 설음식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임'(1986)의 연구¹⁸⁾에 의하면 추석 때 햅쌀 송편을 먹는 가정이 96.5%라고 보고하여 본 조사와 유사한 경향으로 추석을 명절로 인식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아 설과 함께 우리 나라의 최대 명절로 간주되고 있다.

거주 지역별로는 농촌이 도시보다 추석 때 송편, 햇과일 등을 먹는다 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그러나 가족 형태별, 총 월수입별, 주부의 학력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부의 연령별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50대 이상의 주부인 경우 추석음식을 전혀 이용 하지 않는 주부는 없었고 모두 추석음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추석은 환경요인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동지

'동지에는 팥죽을 먹는다'라는 질문에서는 〈표 11〉에서와 같이 '매우 그렇다'가 31.0%, '그런 편이다'가 47.6%로 78.6%가 팥죽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 설날, 추석, 대보름 다음으로 많이 지키는 명절로 나타났다.

'임'(1986)의 연구¹⁸⁾에 의하면 동지에 팥죽을 이용하는 비율이 83.1%로 보고하고 있으나 본 조사와 비교하면 최근의 이용률은 더 낮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 환경 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총월수입이 많을수록 '매우 그렇다'가 높아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이는 설, 추석, 대보름은 대부분의 가정이 쇠고 있지만 동지는 큰 명절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동지도

〈표 10〉 추석 음식의 이용

N(%)

일반적 환경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113(46.7)	111(45.9)	18(7.4)	242(49.7)	$\chi^2=7.47^*$
	농촌	122(49.8)	117(47.8)	6(2.4)	245(50.3)	
	계	235(48.3)	228(46.0)	24(4.9)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04(47.0)	208(47.9)	22(5.1)	434(89.3)	$\chi^2=1.45^{ns}$
	확대가족	29(55.8)	21(40.0)	2(3.8)	52(10.7)	
	계	223(47.9)	229(47.1)	24(4.9)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53(49.6)	47(43.9)	7(6.5)	107(22.8)	$\chi^2=2.12^{ns}$
	100-250	131(46.6)	135(48.0)	15(5.4)	281(59.9)	
	250 이상	41(50.6)	38(46.9)	2(2.5)	81(17.3)	
	계	225(48.0)	220(46.9)	24(5.1)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52(45.2)	57(49.6)	6(5.2)	115(23.8)	$\chi^2=3.62^{ns}$
	40대	170(50.0)	152(44.7)	18(5.3)	340(70.2)	
	50대 이상	12(41.4)	17(58.6)	0(0.0)	29(6.0)	
	계	234(48.4)	226(46.7)	24(4.9)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43(50.0)	36(41.9)	7(8.1)	86(17.8)	$\chi^2=4.06^{ns}$
	중졸	4(49.2)	60(46.2)	6(4.6)	130(27.0)	
	고졸	112(47.70)	115(48.9)	8(3.4)	235(48.8)	
	대졸이상	14(45.2)	157(48.4)	2(6.4)	31(6.4)	
	계	233(48.3)	226(46.9)	23(4.8)	482(100)	

* P<0.05 ns : not significant

〈표 11〉 동지 음식의 이용

N(%)

일반적 환경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71(29.3)	122(50.4)	49(20.3)	242(49.7)	$\chi^2=1.73^{ns}$
	농촌	80(32.7)	110(44.9)	55(22.4)	245(50.3)	
	계	151(31.0)	232(47.6)	104(21.4)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133(30.7)	210(48.4)	91(20.9)	434(89.3)	$\chi^2=0.11^{ns}$
	확대가족	17(32.7)	24(46.2)	11(21.1)	52(10.7)	
	계	150(30.9)	234(48.1)	102(21.0)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22(20.6)	55(51.4)	30(28.0)	107(22.8)	$\chi^2=12.05^{**}$
	100-250	80(28.5)	135(48.0)	66(23.5)	281(59.9)	
	250 이상	29(35.8)	39(48.2)	13(16.0)	81(17.3)	
	계	131(27.9)	213(45.4)	109(23.2)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42(36.5)	52(45.2)	21(18.3)	115(23.8)	$\chi^2=7.57^{ns}$
	40대	105(30.9)	160(47.1)	75(22.0)	340(70.2)	
	50대 이상	4(13.8)	20(69.0)	5(17.2)	29(6.0)	
	계	151(13.8)	232(47.9)	101(20.9)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3(3.5)	11(12.9)	21(24.4)	86(17.8)	$\chi^2=4.07^{ns}$
	중졸	3(2.3)	23(17.7)	21(16.2)	130(27.0)	
	고졸	7(3.0)	38(16.2)	54(23.0)	235(48.8)	
	대졸이상	0(0)	7(22.6)	5(16.1)	31(6.4)	
	계	13(2.7)	79(16.4)	101(21.0)	482(100)	

** P<0.001 ns : not significant

명절로 생각 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환경 요인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3) 행사음식

① 돌

‘아기의 돌 때는 백설기, 수수팥떡을 먹는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12〉에서와 같이 ‘매우 그렇다’가 34.3%, ‘그런 편이다’가 46.4%로 긍정적인 응답이 80.7%로 나타났다. ‘윤’씨에 의하면 돌 음식으로 백설기가 78%의 가정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하여 본 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나 아직도 돌 음식을 차리는 풍습이 많은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환경 요인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② 생일

‘생일에 흰밥과 미역국을 먹는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13〉에서와 같이 ‘매우 그렇다’가 63.0%, ‘그런 편이다’가 33.1%로 96.1%의 가정에서 대체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총 월수입을 제외한 일반 환경 요인에 따른 차이는 볼 수 없었다. 현재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흰밥은 생일에 관계없이 먹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미역국은 평소에도 많이 이용되는 국이

지만 또 한편 생일 음식이라는 전통 의식이 강하게 남아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여주는 가정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그러나 총 월수입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P<0.01) 생일에 흰밥과 미역국을 먹는 비율이 수입이 낮을수록 높았고, 수입이 높을수록 전혀 먹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수입이 높은 가정에서는 생일에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것보다는 외식을 통해 생일을 축하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잔치

〈표 14〉에서와 같이 ‘잔치 때 국수장국을 먹는다’라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31.9%, ‘그런 편이다’가 49.4%로 합하여 81.3%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 지역이 78.1%, 농촌 지역이 84.5%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P<0.05) 농촌가정이 도시가정보다 잔치 때 국수장국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에서는 잔치 때 가정에서보다는 음식점에서 대접하는 경우가 많아 국수장국보다는 다른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가족 형태, 가계 총 월수입, 주부의 연령 및 학력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돌 음식의 이용 실태

						N(%)
일반적 환경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82(33.9)	111(45.9)	49(20.2)	242(49.7)	$\chi^2=0.03^{ns}$
	농촌	85(34.7)	115(46.9)	45(18.4)	245(50.3)	
	계	167(34.3)	226(46.4)	94(19.3)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142(32.7)	207(49.9)	85(19.6)	434(89.3)	$\chi^2=4.81^{ns}$
	확대가족	25(48.1)	20(38.5)	7(13.4)	52(10.7)	
	계	167(34.4)	227(46.7)	92(18.9)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37(34.6)	52(48.6)	18(16.8)	107(22.8)	$\chi^2=6.93^{ns}$
	100-250	93(33.2)	130(46.4)	57(20.4)	281(59.9)	
	250 이상	31(38.3)	35(43.2)	15(18.5)	81(17.3)	
	계	161(34.2)	217(46.4)	90(19.2)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38(33.3)	56(49.1)	20(17.6)	115(23.8)	$\chi^2=1.25^{ns}$
	40대	116(34.2)	158(46.6)	65(19.2)	340(70.2)	
	50대 이상	12(41.4)	11(37.9)	6(20.7)	29(6.0)	
	계	166(34.4)	225(46.7)	91(18.9)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32(37.2)	38(44.2)	16(18.6)	86(17.8)	$\chi^2=6.72^{ns}$
	중졸	44(33.9)	54(41.5)	32(24.6)	130(27.0)	
	고졸	81(34.5)	119(50.6)	35(14.9)	235(48.8)	
	대졸이상	9(29.0)	15(48.4)	7(22.6)	31(6.4)	
	계	166(34.4)	226(46.9)	90(18.7)	482(100)	

ns : not significant 유의적인 차이 없음

〈표 13〉 생일 음식의 이용

						N(%)
일반적 환경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145(59.9)	85(35.1)	12(5.0)	242(49.7)	$\chi^2=2.51^{ns}$
	농촌	162(66.1)	76(31.0)	7(2.9)	245(50.3)	
	계	307(63.0)	161(33.1)	19(3.9)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267(61.5)	151(34.8)	16(3.7)	434(89.3)	$\chi^2=5.25^{ns}$
	확대가족	39(75.0)	10(19.2)	3(5.8)	52(10.7)	
	계	306(63.0)	161(33.1)	19(3.9)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73(68.2)	32(29.9)	2(1.9)	107(22.8)	$\chi^2=6.93^{**}$
	100-250	174(61.9)	100(35.6)	7(2.5)	281(59.9)	
	250 이상	49(60.5)	26(32.1)	6(7.4)	81(17.3)	
	계	296(63.1)	158(33.7)	15(3.2)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71(61.7)	39(33.9)	5(4.4)	115(23.8)	$\chi^2=0.19^{ns}$
	40대	216(63.5)	111(32.7)	13(3.8)	340(70.2)	
	50대 이상	18(62.1)	10(34.5)	1(3.4)	29(6.0)	
	계	305(63.0)	160(33.1)	19(3.9)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60(69.8)	24(27.9)	2(2.3)	86(17.8)	$\chi^2=3.97^{ns}$
	중졸	84(64.6)	42(32.3)	4(3.1)	130(27.0)	
	고졸	143(60.9)	81(34.4)	11(4.7)	235(48.8)	
	대졸이상	17(54.8)	12(38.7)	2(6.5)	31(6.4)	
	계	304(63.1)	159(33.0)	19(3.9)	482(100)	

** P<0.001 ns : not significant

〈표 14〉 잔치 음식의 이용

N(%)

일반적 환경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65(26.9)	124(51.2)	53(21.9)	242(49.7)	$\chi^2=6.62^*$
	농촌	90(36.7)	117(47.8)	38(15.5)	245(50.3)	
	계	155(31.8)	241(49.5)	91(18.7)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135(31.1)	218(50.2)	81(18.7)	434(89.3)	$\chi^2=1.35^{ns}$
	확대가족	20(38.5)	22(42.3)	10(19.2)	52(10.7)	
	계	155(31.9)	240(49.4)	91(18.7)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41(38.7)	45(42.1)	21(19.6)	107(22.8)	$\chi^2=6.60^{ns}$
	100-250	79(28.1)	151(53.7)	51(18.2)	281(59.9)	
	250 이상	28(34.6)	35(43.2)	18(22.2)	81(17.3)	
	계	148(31.6)	231(49.2)	90(19.2)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39(33.9)	53(45.2)	24(20.9)	115(23.8)	$\chi^2=4.91^{ns}$
	40대	109(32.2)	172(50.7)	58(17.1)	340(70.2)	
	50대 이상	6(20.7)	15(48.3)	9(31.0)	29(6.0)	
	계	154(31.9)	238(49.3)	91(18.8)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34(39.5)	34(39.5)	18(21.0)	86(17.8)	$\chi^2=11.25^{ns}$
	중졸	49(37.7)	55(42.3)	26(20.0)	130(27.0)	
	고졸	63(26.9)	129(54.7)	43(18.4)	235(48.8)	
	대졸이상	8(25.8)	19(61.3)	4(12.9)	31(6.4)	
	계	154(32.0)	237(49.1)	91(18.9)	482(100)	

*P<0.05 ns : not significant

〈표 15〉 제사 음식의 이용

N(%)

일반적 환경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유의도
거주지역	도시	147(60.8)	56(23.1)	39(16.1)	242(49.7)	$\chi^2=3.59^{ns}$
	농촌	164(66.9)	55(22.5)	26(10.6)	245(50.3)	
	계	311(60.8)	111(22.8)	65(13.3)	487(100)	
가족형태	핵가족	274(63.1)	103(23.7)	57(13.1)	434(89.3)	$\chi^2=1.86^{ns}$
	확대가족	36(69.2)	10(19.3)	6(11.5)	52(10.7)	
	계	310(63.8)	113(23.3)	63(12.9)	486(100)	
가계 총월수입 (만원)	50-100	68(63.6)	29(27.1)	10(9.4)	107(22.8)	$\chi^2=6.60^{ns}$
	100-250	188(66.9)	60(21.4)	33(11.7)	281(59.9)	
	250 이상	46(56.8)	18(22.2)	17(21.0)	81(17.3)	
	계	302(64.4)	107(22.8)	60(12.8)	469(100)	
주부의 연령	30대	76(66.1)	26(22.6)	13(11.3)	115(23.8)	$\chi^2=0.66^{ns}$
	40대	215(63.2)	77(22.7)	48(14.1)	340(70.2)	
	50대 이상	18(16.7)	6(21.7)	55(16.6)	29(6.0)	
	계	309(63.9)	109(22.6)	66(13.5)	484(100)	
주부의 학력	초등졸	65(75.6)	16(18.6)	5(5.8)	86(17.8)	$\chi^2=19.93^{***}$
	중졸	87(66.9)	29(22.3)	14(10.8)	130(27.0)	
	고졸	145(61.7)	51(21.7)	39(16.6)	235(48.8)	
	대졸이상	11(35.5)	13(41.9)	7(22.6)	31(6.4)	
	계	308(63.9)	109(22.6)	65(13.5)	482(100)	

***P<0.001 ns : not significant

④ 제사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는다’라는 질문에서는 <표 15>에서와 같이 ‘매우 그렇다’가 63.9%, ‘그런 편이다’가 22.8%로 합하여 86.7%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기독교 등의 종교를 믿는 가정이 많아 집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거주 지역, 가족 형태, 가계 총 월수입, 주부의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제사를 지내고 제사음식을 먹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IV. 요약 및 결론

경기도 농촌과 인천도시지역에 거주하는 30-50대 사이의 중년주부 487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전통음식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지역은 도시 49.7%, 농촌 50.3%로 반반씩 차지하였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9.3%, 확대가족이 10.7%로 핵가족형태가 훨씬 많았다. 가계 총 월수입은 100~250만원이 5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100만원 22.8%, 250만원 이상 17.3%순 이었다. 주부의 연령은 40대가 70.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8%, 50대가 6.0%순 이었다. 주부의 학력은 고졸이 48.8%로 가장 많고, 중졸 27.0%, 초등졸 17.8%, 대졸이상 6.4%순 이었다.
2. 전통 음식의 이용 실태는 일상식, 명절 음식, 행사 음식의 이용을 일반적인 환경에 따라 비교하였다.
- 1) 일상식의 이용 실태를 보면 매 끼니에 한국 전통의 반상 차림을 하는 편인 가정은 96.9%로 매우 높았고, 농촌이 도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는 가정은 97.3%이며 농촌이 도시보다($P<0.01$),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P<0.05$),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P<0.01$) 유의하게 높았다. 장류를 집에서 담가 먹는 가정은 64.3%이나, 전혀 만들지 않는 가정도 35.7%나 되며, 농촌가정이 도시가정보다($P<0.001$),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P<0.01$),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P<0.001$) 유의하게 높았다. 저장 식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가정은 74.3%이나, 전혀 만들지

않는 가정도 25.7%를 차지하였다.

- 2) 명절 음식의 이용 실태를 보면 설에 떡국과 만둣국을 먹는 비율이 99.6%이었으며 농촌가정이 도시가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5$), 정월대보름에는 환경 요인에 따라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95.1%가 오곡밥, 묵은 나물, 부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짚날 진달래 화전을 먹는 비율은 18.9%로 낮았으나 농촌가정이 도시가정보다($P<0.05$) 유의하게 높았다. 단오에 썩절편을 먹는 비율은 43.8%로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P<0.05$) 유의하게 높았다. 추석에 송편, 햇과일을 먹는 비율은 95.1%이었으며 농촌이 도시보다($P<0.05$) 유의하게 높았다. 동지에 팔죽을 먹는 비율은 73.3%이었으며 가계 총 월수입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5$). 명절음식의 이용빈도는 설, 정월 대보름, 추석, 동지, 단오, 삼짚날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 3) 행사 음식의 이용 실태를 보면 돌에 백설기, 수수팔떡을 먹는 비율이 80.7%, 생일에 흰밥과 미역국을 해먹는 비율이 96.0%이었다. 잔치음식으로 국수장국의 이용도는 81.3%로 농촌가정이 도시가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제사음식이용은 86.7%로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P<0.001$) 유의하게 높았다. 행사 음식의 이용 빈도는 생일, 제사, 잔치, 돌순으로 나타났다.
- 이상에서와 같이 전통 음식은 각 가정에서 현재까지는 비교적 많이 이용 되고 있었으나 도시보다는 농촌이, 핵가족보다는 확대가족이, 또한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많이 이용하고 있어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주부의 학력이 증가됨에 따라 전통 음식의 이용이 장래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전통 음식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이성우, 고려 이전의 한국 식생활사 연구, 향문사, 1978.
- 2) 윤서석, 한국 식생활 문화의 개요, 국민영양 102 (10): 2-3, 1988.
- 3) 윤서석, 한국 민속학, 수학사, 1978.
- 4) 강인희 · 이경복, 한국 식생활 풍속, 삼영사, 1985.
- 5) 한복진, 팔도음식, 대원사, 1989.

- 6) 윤서석, 한국 식품사 연구, 신광출판사, 1985.
- 7) 윤서석, 한국 식생활 문화의 고찰, 한국영양학회지 19(2): 107-113, 1986.
- 8) 윤서석, 장류, 국민영양 106(3) 30, 1988.
- 9) 안명수, 전통 음식의 의의, 제4회 전통 문화 학술 세미나 초록집: 7-21, 1990
- 10) 이석호譯, 東國歲時記, 列陽歲時記, 東京雜記, 大洋書籍.
- 11) 윤서석, 한국식생활의 통사적 고찰, 한국식문화학회지 8(2): 210-216, 1993.
- 12) 구난숙,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 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10(4) 357-366, 1995.
- 13) 이영순·임나영·박광희,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식문화에 대한 의식 및 실태 조사 연구, 한국식생활 문화학회지 9(4): 396-378, 1994.
- 14) 안숙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령별 성별에 따른 한국 일상식의 기호에 관한 연구, 가정문화론집 2: 125-160, 1988.
- 15) 임양순, 의례 음식에 대한 주부의 의식 조사 연구 -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 20: 247 - 265, 1984.
- 16) 조연숙, 전통 음식에 관한 도시 주부들의 의식 조사 연구 - 대구 중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7) 윤옥현, 경주 지역 전통 절식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18) 임양순, 우리 나라 절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1(4): 361-369, 1986.
- 19) 김향희, 한국 절식의 시행 실태에 관한 지역별 비교 연구 - 강릉, 대전, 전주, 대구 지역 중심으로 -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20) 이영남, 전통 음식의 실시 현황, 제4회 전통 문화 학술 세미나 초록집, 1990.
- 21) 한경선 한국 가정의 일상식의 구조와 그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22) 이정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 중앙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23) 경남 신문, 김치 직접 담근다, 1992, 12.8.
- 24) 이영남·신민자·김복남, 전통 음식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1): 71 -84, 1991.
- 25) 윤숙경, 풍기 지역의 식문화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8(1): 21-42, 1993.